

# 이동진의 빨간 책방

25/26

진행 이동진 PD 박미정 작가 허은실 기획 및 제작 왕인정, 허운경

## 책, 임자를 만나다



## 이동진 여행 에세이 특집

삶에 대한 가장 흔한 비유 중 하나는 아마도 여행일 겁니다.

우린 우주 어딘가로부터 이 지구에 도착했구요.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누구나 삶이라는 여행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. 천상병 시인도 삶을 그래서 소풍이라고 표현했던 거겠죠. 그 과정 자체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면에서 그렇습니다.

어딘가로 떠나기 더없이 좋은 계절, 5월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'빨간책방' 1주년 특집으로 제가 쓴 3권의 여행에세이 <낮선 거리에서 영화를 만나다><필름 속을 건다><길에서 어렵פות이 꿈을 꾸다>와 함께 여행과 글을 주제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.

## 에디터 통신

### 나는 인생의 고비마다 한 뼉씩 자란다

베스트셀러 『가슴이 시키는 일』로 10만 독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김이울 작가가 이번에는 절망의 순간 다시 희망의 꽃을 피워 성공한 스물세 명의 감동실화를 들려줍니다.

전신마비 장애 아들과 함께 철인3종경기를 완주한 덕 호이트, 뇌성마비임에도 영업왕이 된 빌 포터 등 인생의 시련을 당당하게 이겨낸 이들의 이야기는 어떤 역경에도 희망을 믿고 참고 견디면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.





## 로저 에버트

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평론가가 아닐까 싶은데요. 그가 썼던 수많은 글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글은 영화평론이 아니라 바로 지금 소개해드릴 책입니다. 로저 에버트는 말년에 암으로 턱을 잃었죠. 그래서 흥하게 일그러졌음에도 책의 표지는 그 모습 그대로 쓰고 있어서 굉장한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.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담담하고 성숙한 시선이 인상적인데요. 그는 자신의 삶을 한편의 영화로 회고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그 중에서 맨 처음 부분과 맨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.



## 니나가 만나러 갑니다

### 엄마는 어찌면 그렇게

- Q. 장성한 아들이 엄마에 관한 책을 낸다는 것은 신기한 축에 속합니. 편집장님께 엄마의 이야기를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?
- A.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의 이야기를 사라지지 않게 꼭 붙잡는 것, 보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- Q. '에디터스 레터'를 쓰는 것과 책을 내는 것의 차이는?
- A. 평소 친구들을 집에 불러 놓고 이것저것 먹고 마시고 놀다가, 어느 날은 신선로나 공이 많은 요리를 해서 먹이는 것,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.
- Q. 글마다 독특한 비유와 시선으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계신데요. 글로 표현할 때 염두에 두시는 점이 있다면?
- A. 특별히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다. 다만 제 앞의 대상이나 이 순간이 딱 한 번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- Q. 엄마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을 얻기도 하시나요?
- A. 그럼요. 명함대비가 끝내줍니다. 어머니는 근면하고 정직하고 검약스러운 반면 저는 소비에 대해 충격적인 측면이 있거든요



## 내가 산 책

**김 박사는 누구인가**  
젊은 재담꾼 이기호의 세 번째 소설집

**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**  
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종교, '발전'

**흔적 없이 사라지는 법**  
흥미진진, 기상천외한 실전 잠적의 기술

**나라는 여자**  
상처는 지극히 인생에 상냥하다!

**이야기의 기원**  
스토리텔링 유전자의 탄생과 인간의 진화



# 이동진의 빨간 책방

## 디지털 매거진 5월호 발행!

아이폰 뉴스가판대를 통해  
**디지털 매거진 Vol.03**가  
 발행 됩니다  
 오감으로 전달되는  
 다양한 콘텐츠의 매력을  
 직접 느껴 보세요

**Vol.03 다운로드** 



### 매거진 미리보기

2013년 5월 1일, 아이튠즈 뉴스가판대에서 이동진의 빨간 책방 VOL.03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.



표지



책, 임자를 만나다



소리나는 책



2B가 그러러 갑니다



내가산 책